리강과 알바니스

제 9 회 중국—오스트랄리아 총리 년도회담

현지시간으로 6월 17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캔베라 의회청사에서 오스트랄리아 총리 알바니스와 제 9 회 중국—오스트랄리아 총리 년도회담을 거행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6월 17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캔베라 의회청사에서 오스트랄리아 총리 알바니스와 제 9 회 중국－오스트랄리아 총리 년도회담을 거행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는 습근평 주석이 오스트랄리아를 국빈방문하고 중국과 오스트랄리아가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지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10년래의 중국－오스트랄리아 관계 발전 로정을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한 경험과 계시가 바로 상호존중, 구동존이(求同存异), 호혜협력이다. 지난해 11월 총리선생이 중국을 방문한 이래 중국과 오스트랄리아의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은 한층 더 회복과 발전을 가져왔고 량국 관계는 전면적인 전환을 실현했다. 중국측은 오스트랄리아측과 함께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당면 량국 관계의 적극적 태세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더욱 성숙되고 안정적이며 더욱 성과적인 중국—오스트랄리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합심해 구축함으로써 량국 인민에게 더욱 많은 복지를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오스트랄리아 관계의 본질적 특징은 바로 호혜상생이다. 중국과 오스트랄리아의 발전은 서로에게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다. 중국측은 오스트랄리아측과 함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위를 견지하고 중국－오스트랄리아 전략적 경제대화 등 기제를 잘 리용하여 무역 규모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확장하며 지방, 문화관광 교류협력을 강화할 용의가 있다. 오스트랄리아측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경영환경을 마련해주고 쌍방의 인적 왕래에 더욱 많은 편리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중국측은 오스트랄리아측과 함께 지역과 국제 차원에서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고 본 지역의 평화와 안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진영대결과 '신랭전'을 반대하고 개방포용, 공동발전을 견지하며 지역경제 일체화를 손잡고 추진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할 용의가 있다.

알바니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스트랄리아는 당면 오스트랄리아—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기쁘게 보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오스트랄리아측은 중국의 발전번영을 지지하며 중국이 세계의 빈곤감소사업을 위해 한 중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 오스트랄리아측은 중국측과 함께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고 오스트랄리아—중국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경축을 계기로 경제무역, 에너지, 인문,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량국 립법기구의 교류를 강화하며 부동한 의견으로 인해 량국 관계가 벌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오스트랄리아—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도록 촉진할 용의가 있다. 더욱 많은 중국 학생과 관광객들이 오스트랄리아에 와서 류학하고 려행하는 것을 환영한다.

량국 총리는 중국—오스트랄리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정위를 견지하고 중국—오스트랄리아 관계 개선과 발전 태세를 공고히 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할 데 대해 일치하게 동의했다. 쌍방은 올해 안으로 오스트랄리아에서 제 10 회 중국—오스트랄리아 과학기술협력련합위원회 회의, 중국—오스트랄리아 고위급별 대화회의 제 8 차 회의, 제 8 차 중국—오스트랄리아 기후변화 부장급 대화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중국측은 오스트랄리아측을 일방적 비자 면제 범위에 편입시키며 쌍방은 서로 관광, 상무, 친척방문 인원들에게 3년 내지 5년의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는 데 동의했다.

쌍방은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회담후 량국 총리는 전략적 경제대화, 자유무역협정 실시, 기후변화 대응, 교육, 문화 등 분야의 여러가지 량자 협력문서 체결을 목격했으며 공동으로 기자들을 회견했다. 쌍방은 〈중국—오스트랄리아 총리 년도회담 련합 성과 성명〉을 발표했다.

제 9 회 중국—오스트랄리아 총리 년도회담전 리강은 알바니스와 소범위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전, 알바니스는 의회청사 광장에서 리강 총리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19발의 례포를 쏘아올렸고 중국—오스트랄리아 량국 국기가 광장 상공에서 나붓겼다. 의장대렬이 총경례(持枪礼)를 하고 군악대가 중국과 오스트랄리아 량국 국가를 주악했다. 리강이 의장대를 검열했다.

오정륭이 상기 활동에 참가했다.

/ 인민넷－조문판

조선중앙통신 :

뿌찐 평양 도착, 조선 국빈방문 시작

6월 19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오른쪽)과 로씨야 대통령 뿌찐이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 신화넷

조선중앙통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 대통령 뿌찐이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에 대한 국빈방문을 시작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평양국제공항에서 뿌찐을 영접했다.

김정은은 뿌찐과 270여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돼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한다고 표했고 뿌찐은 김정은이 공항에까지 나와 맞이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두 사람은 금수산영빈관에 도착하여 담소를 나누었다.

2023년 9월, 김정은은 로씨야를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은 로씨야 극동지역 아무르주 동방우주발사장에서 뿌찐과 '력사적인' 회동을 갖고 여러가지 중대한 문제와 협력 사항을 론의하고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때 김정은이 뿌찐의 조선 방문을 초청했고 뿌찐은 초청을 받아들였다.

/ 신화넷

뿌찐 : 쌍무 협조 더욱 높은 수준으로

조선중앙통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 대한 국빈방문을 하기 전 로씨야 대통령 뿌찐은 조선 《로동신문》에 문장을 발표하여 로씨야와 조선이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썼다. 평등과 상호 존중, 신뢰의 원칙에 기초한 로씨야와 조선 사이 친선과 선린 관계는 70년이 넘었다. 량국은 현재 다방면의 동반자 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

문장은 량국은 공동의 노력으로 "쌍무적 협조를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올려세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장은 또 미국은 본질에 있어서 '2중 기준'에 기초한 세계적인 신식민주의 독재외에는 그 무엇도 아닌 이른바 '규정에 기초한 질서'를 세계에 강요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신화넷

2024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 서울서

6월 18일, 서울에서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이 분과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화넷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TCS)이 주최한 2024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이 18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개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행사이다. '협력의 제도화와 교류 증진을 통해 더 밝은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각계각층의 대표 300여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수백명의 인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이희섭은 개회사에서 중일한 협력의 발전 과정을 되돌아보고 복잡한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과정에서 3국은 끊임없이 도전을 기회로 바꿔왔고 중일한 협력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플래트홈이 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일한 3국 협력은 개방과 포용, 상호 존중, 조화로운 공생의 리념을 계속 견지하고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정신에 립각한 실무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해 3국 및 지역 국민들에게 더 많은 만족감을 가져다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두개의 분과포럼이 열렸다. '미래 공유를 위한 비전 :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첫번째 분과포럼은 3국 정치인, 외교관, 전문학자들이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정학적 안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국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럽련맹 고위급 외교관들은 유럽 일체화 경험에서 출발해 중일한 협력의 미래 방향에 대해 조언을 제시했다.

두번째 분과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 : 상호 인지도 제고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으로 3국의 디지털경제 전문가, 1인 미디어 블로거(自媒体博主), 인공지능(AI) 리더 및 유엔 외교관들이 참석해 소셜미디어(社交媒体)를 포함한 뉴미디어(新媒体)가 어떻게 대중의 인지도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론의했다. 또한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은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의 년례 큰 행사로 3국 정부·학술·기업·언론 등 각계각층에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3국간 정치관계와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의제를 심도있게 론의하기 위해 마련된다.

/ 신화넷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래트홈 사상 최대 벌금 직면!

/ 자료사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내 1위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인 쿠팡과 그의 한 계렬사에 한화로 1,400억원(인민페 약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한국내 류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처벌한 리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쇼핑(购物) 검색 순위 조작이다.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쿠팡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6만개가 넘는 자체 브랜드 상품과 직영 상품의 순위를 다른 기업의 제품보다 높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관련 상품의 판매총액이 70% 이상 증가했다.

두번째 리유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자주 참고하는 구매 후기도 쿠팡측이 조작한 혐의가 있었다. 쿠팡 직원 2,200여명이 자체 브랜드 상품에 대해 7만여건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으며 평균 4.8점의 높은 점수를 매겨 고객의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가 있었다.

그러나 쿠팡측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중앙인민방송